

과학 싹 큰 잔치와 과학 대중화

지난 10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서울에 있는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 '2007년 과학 싹 큰 잔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와 '2007 생물학의 해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하여 '2007 생물학의 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범·실험 부스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그래서 다른 해 보다 생물 관련 시범·실험 부스 활동이 많았고 필자도 '간단한 현미경 만들기'라는 주제로 참여했다.

조금은 쌀쌀한 늦가을 날씨였지만 파란 잔디 위에 펼쳐진 몽골 텐트와 가족 단위로 찾아온 관람객들이 부스를 찾아 시범 활동을 관람하고 실험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지내는 것을 보며 옛 생각과 함께 '과학 대중화란 이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가 시작된 지도 벌써 십 이삼년은 된 듯 싶다. 첫 행사 때 참가했었는데 그 때는 필자가 첫 학교에서 어설픈 학생을 가르치고 있던 때였고 지금처럼 과학과 관련된 부스 활동이나 체험 활동이 거의 없던 때였다. 처음 열리는 과학 싹 큰 잔치에도 시범·실험 부스 활동은 그저 십 여 개가 고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 행사만 해도 한얼광장이 시범·실험 부스활동 부스와 이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지 않은가? IMF 외환위기 이후 몰아닥친 이공

계 기피 현상과 맞물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가운데 과학 대중화 행사도 활성화 되었다. 지금은 4월 과학의 달 행사와 더불어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4월 가족과학축제를 시작으로 시범·실험 부스활동이 주축이 된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다. 시도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지역 과학 싹 잔치, 지역 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지역 과학축제, 국립과학관 주관으로 열리는 사이언스데이,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과학축제, ... 아마도 10월에 열리는 이 '과학 싹 큰 잔치'가 시범·실험 부스활동이 주축이 된 행사의 끝일 듯 싶다.

시범·실험 부스활동이 주축이 된 '과학 싹 큰 잔치'와 같은 행사는 과학 대중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시범·실험 부스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형성되었고 그 수가 늘어났으며, 이런 행사를 즐기는 문화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분명해졌다. 많은 행사에 참가해서 보면 지역

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며,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도 다른 데 내용은 별 차이 없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시범·실험 부스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시범·실험 부스활동에서 보여주는 현상에 대해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한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다. 왜 그런지 조금 더 생각하고 질문하려 하지 않는다.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열심히 준비한 설명서도 보지 않으려 한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해보려고 기웃거릴 뿐.

지금까지 과학 대중화 사업은 양적 팽창에 치중해왔다. 과학 대중화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참가 인원으로 행사의 성공을 기술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 대중화 사업도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과학 대중화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범·실험 부스활동이 주축이 된 과학 행사도 계속되어야 하고 지방 소도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열려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팽창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용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도 신경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정부는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행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평가 방법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임 혁(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s2tes@dreamwiz.com)

과학교사들의 땀과 열정, 제5회 전국과학교사큰모임

과학교사들의 땀과 열정의 결정체인 제5회 전국과학교사큰모임이 지난 2007년 10월 13일 소위 '늘토'에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2층 4개 실험실과 정약용 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사이언스데이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과학 한마당축제를 이루었다. 이 날 행사에는 강원과학교육연구회, 경기도과학교과교육연구회, 대구화학교사연구회, 대전과학교사모임, 부산어메니티과학교육연구회, 사랑의 과학 나눔터(3S키트연구회),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인천과학사랑교사모임, 전남중등물리교육연구회, 전북과학교사교육연합회, 화학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모임, 울산과학교과연구회, 참과학, 경북과학교사모임,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등 전국의 15개 교사 단체가 참가하였다. 이 날 행사에 주최 측은 당초 참여 인원을 100여 명으로 예상하였으나 행사 당일 150여 명이 넘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전국과학교사큰모임(컨퍼런스)은 올해 5회째 이어지는 행사로서 대부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전국 각 지역의 과학교사연구회가 연합하여 치루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각 회원 단체들이 일 년 동안 연구한 내용 중 대표적이라 할 만한 아이템 한두 가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단순한 '분필수업'에 의존해왔던 필자는 이 행사를 참가할 때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과학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과학 이론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채롭고 재미있었구나 하는 점에 놀라고 한편으론 아무런 대가(인센티브)없이 손수 호주머니 돈을 투자하여 자기가 연구한 바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을 만들고 있는 과학교사들의 순수한 열정에 놀라게 된다.

이 날도 '눈으로 보는 정상과'(인천과학사랑교사모임) 외에 23개의 아이템이 발표되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실마다 열기가 가득했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과학교사들은 새로운 실험이나 교수학습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교사로서의 열정을 배우고 자극받게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러한 순수한 열정과 연구 의욕이 충만한 과학교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과학교육은 희망이 있다고 감히 단언해본다. 조청원 국립중앙과학관장님도 이러한 열정에 감동하셨는지 앞으로 전국과학교사협회에게는 언제든지 과학관을 개방하시겠다고 하시고 심지어 회원들에게 무료로 과학관 가족회원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한편 UN미래포럼 대표인 박영숙님의 '과학발전과 미래사회'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은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충격을 주었다. 교육이 백년대계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미래 세계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적 규모의 미래를 연구하는 모임의 대표께서 제시한 엄청난 양의 정보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계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상에 대한 강연 내용은 우리에게 그 동안 깊이 접하지 못했던 과학과 미래세계라는 화두를 제시해 주었다. 이 날 행사는 또 다른 차원의 발전을 기약하며 대한민국 과학교사 교류 선언을 채택하고 끝을 맺었다.

대한민국 과학교사 교류 선언

- 과학교사(우리)는 새로운 학습 자료를 개발·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을 이롭게 한다.
- 과학교사(우리)는 각 지역 교과연구회에서 제안한 프로젝트의 충돌을 완화하고 공익을 우선한다.
- 과학교사(우리)는 기초자연과학의 교수·학습 지도방법과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 과학교사(우리)는 학생과 학부모와 더불어 과학과 교육과정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 과학교사(우리)는 학교 및 사회에서 올바른 과학교육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

박 금 재(경기 성안고등학교 교사, pansori4u@paran.com)

📌 '현장의 목소리'는 과학교육현장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소식, 과학교육과 관련한 의견, 과학탐구, 실험실습, 교수 학습자료, 교육과정, 교수법, 과학동아리 활동 자료 등과 관련한 내용이나, <현장과학교육>에 실린 글에 대한 리뷰를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A4 한 쪽 정도로 글을 작성하여 본 학회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장의 생생하고 소중한 기록들이 함께 하는 코너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많은 원고를 기다립니다.